

허버베이스볼, 3회 12점... 개막전부터 화력 폭발



지난 13일 광주시 남구 동성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아이프렌즈와 자연환경야구단의 경기에서 5회말 무사 1루 주자 아이프렌즈의 김지훈이 2루 베이스를 훔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주최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무등리그

아이프렌즈, 팽팽한 5-5 승부 자연환경에 추침승 베프스, 2회 6타점...노세요양병원에 17-9 역전승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 축제가 시작됐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가 지난 13일 동성

고 야구장에서 개막했다. 무등리그 대결로 치러진 1주차 경기에서 허버베이스볼 클럽, 새사랑메디컬, 아이프렌즈, 베프스, F9수완 O-lens가 승자가 됐다.

개막전을 치른 허버베이스볼은 유한김별리양술김을 4회 16-2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허버베이스볼은 3회 12점을 뽑아내는 막강화력을 과시했다.

새사랑메디컬은 아인스리버블릭과의 경기에서 기권승을 거뒀다. 아이프렌즈와 자연환경의 팽팽했던 승부는 아이프렌즈의 추

침승으로 끝났다. 양팀은 7회까지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추첨으로 승자를 가렸다.

베프스는 1회 4실점을 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2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면서 17-9, 역전승을 장식했다. 4회 투런포를 날린 이기남은 승리투수까지 동시에 기록했다.

F9수완O-lens는 0-3으로 뒤진 4회 6점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NH자이언츠를 7-6, 1점차로 제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전적

- ◇1경기 유한김별리양술김 0020-2 허버베이스볼클럽 4012 X-16 ▲승리투수 : 유기룡
- ◇2경기(기권승) 새사랑메디컬 1111111-7 아인스리버블릭 0000000-0
- ◇3경기 자연환경

- 아이프렌즈 2100011-5 자연환경 1110020-5 <추침승>
- ◇4경기 베프스 060217-17 노세요양병원 44100-9 ▲승리투수 : 이기남 ▲홀런 : 이기남 (4회 2점·베프스)
- ◇5경기 F9수완O-lens 000601-7 NH자이언츠 003201-6 ▲승리투수 : 기민규

KIA-한화 탈꼴찌 단두대 매치... 1.5게임차 유지



14일 프로야구 한화와 기아의 경기가 열린 대전 한밭야구장에 관중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날 경기는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으로 매진됐다.

/연합뉴스



“와~ 조인성이다” 팬들 함박웃음

덕아웃 특·특·특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KIA의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쯤 한대화 수석코치가 가방을 챙겨들고 덕아웃에 등장했다. 한 수석코치가 뒤늦게 경기장에 등장한 이유는 특타때문이었다. 김민우·박준태·박기남·백용환 등은 오전 대전고에서 한 수석코치의 따로 타격 훈련을 했다.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가 한 수석의 설명.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KIA는 4명의 야수진을 1군에 불러올렸다. 전체 야수진은 19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격 훈련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일이 됐다. 원정 경기에서는 따로 고등학교를 찾아 타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요즘 아픈 것 같아요.”

김주형 얼굴에 꽃이 피었다. 시즌 전까지만 해도 절정의 타격감으로 필을 위협했던 김주형은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무릎을 다치는 등 부상과 부진으로 올 시즌에도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8월 복귀 후 상황이 달라졌다. 8월27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멀티 히트로 3타점을 수확하

며 복귀전을 치른 김주형은 이후 30타수 14안타(타율 0.467), 2홈런 4볼넷 7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더했다. 꾸준한 활약에 놀랐다는 얘기에 김주형은 “제가 요즘 아픈 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하며 머쓱하게 웃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 꾸준한 페이스다.

▲“우와 조인성이다.”

14일 대전구장은 시즌 처음으로 이를 연속 매진 사례를 이뤘다. 야수안게임 휴식기로 10월1일까지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탓에 KIA의 원정팬까지 대거 대전구장에 자리를 하면서 성황을 이뤘다. ‘조인성 효과’도 있었다. 한화 포수 조인성과의 인연으로 배우 조인성이 시구자로 대전구장을 찾은 것이다. 한화 이태양으로부터 시구 지도를 받은 조인성은 포수 조인성과 호흡을 맞춰 시구를 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조인성은 움직임 때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이어지면서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물론 선수들도 인기 배우의 등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인성은 이날 최고의 스타가 됐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전구장, AG 휴식기 앞두고 주말 연속 매진 양팀 1승1패...KIA, 17일부터 훈련·연습경기

8·9위의 대결이었지만 대전은 뜨거웠다.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열린 주말 이를 연속 1만3000명이 대전구장 관중석에 자리를 하면서 매진을 기록했다. 야수안게임 휴식기를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2연전, 4강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최하위 싸움이 진행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8회 4-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기록한 KIA는 12일에는 양현종이 1이닝 3피홈런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대전을 찾았다.

13일 연장 접전 끝에 상대의 실책으로 행운의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오는 10월1일까지 긴 휴식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경기에서는 승을 챙기지 못했다.

14일 경기는 7개의 홈런포를 주고 받은 한방 싸움이었다. 1-3으로 뒤진 5회 KIA가 이범호와 김민우의 한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김병현-임준섭에 이어 등판한 송은범이 5회말 한화 김태균에게 투런을 허용하면서 다시 균형이 깨졌다.

6회에는 3개의 홈런포에 KIA 마운드

가 휘청거렸다. 송은범이 최진행·정범모에게 솔로포를 맞으며 강판됐고, 구원 등판한 심동섭까지 송광민에게 스리런을 맞으면서 3-10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이대형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7회 김주형의 볼넷에 이어 박기남이 안영명을 상대로 대타 홈런을 터트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다.

결국 8위와 9위의 싸움은 1승1패로 마무리 됐다. KIA의 성적은 49승65패가 되면서 승률은 0.426으로 떨어졌다. 고춧가루 부대로 맹활약하며 뒷심의 야구를 보여준 한화의 승률은 0.412.

8위 자리에서 휴식기를 보내게 됐지만 아직 끝난 최하위 싸움은 아니다.

KIA의 잔여경기는 13. 올 시즌 2승9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과 가장 많은 5경기가 남아있다. 역시 4승

10패에 그친 넥센과도 2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잔여경기에서 어려운 상대들을 만나야 한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KIA는 이를 휴식을 취한 뒤 10월 반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17일 훈련을 재개하는 KIA는 한화·NC와 4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경기감각을 조율한다.

KIA는 23일 한화, 24일 NC와 홈에서 야간 연습경기를 치른 뒤 27일 대전으로 건너가 오후 5시 한화와 다시 연습경기를 갖는다. 28일 오후 5시에는 마산에서 NC와의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리빌딩을 위한 큰 틀도 구성될 예정이다. 선동열 감독은 야수안게임 휴식기 이후 좌완 심동섭을 마무리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대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